

수신 : 원장

참조 : 경영본부장, 센터소장, 동북아팀장

<중국경제동향보고 2001-02>

2001. 1. 10

KIEP 북경사무소

중국정부, 西部大開發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방향 발표

1. 개요

□ 중국정부는 지난 연말 서부대개발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「西部大開發 政策措置 실시에 관한 通知」를 발표하였음.

- 同 「通知」에는 서부대개발과 관련하여 ▲정책 제정의 원칙 및 중점 사항, ▲투입자금 확대, ▲투자환경 개선, ▲대외개방 확대, ▲인재 유치 및 과학 교육 발전 등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 있음.

2. 서부대개발 정책의 원칙과 방향

□ 장차 중국정부는 시장원리와 거시조정 정책을 결합하여 서부대개발 정책에 각 지역 간부 및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임.

- 향후 서부대개발의 중점 임무는 조속한 인프라 건설, 생태환경 보호 강화, 농업 기초 공고화, 공업구조 조정, 서부지역 특색의 관광업 발전, 과학기술 교육 및 문화 위생 사업 발전 등임.
- 서부대개발 대상지역은 重慶直轄市, 四川省, 貴州省, 雲南省, 西藏自治區, 陝西省, 甘肅省, 寧夏回族自治區, 青海省, 新疆위그르自治區, 內蒙古自治區, 廣西藏族自治區 등 12개 지역으로 최종 확정됨.

□ 중국정부는 자금 투입 증대, 건설프로젝트 우선 배분, 정부재정 지원 확대, 금융 대출 강화 등 서부대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함.

- 건설부문에 투입되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출항목 중 서부지역 투자 비중을 늘리고 정부의 정책성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, 국제금융조직 및 외국정부의 우대금리 자금 역시 서부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분배할 방침임.

- 수리, 교통, 에너지 등 인프라 건설, 자원 개발 및 이용, 하이테크 및 민영화 등의 분야에서 서부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.

- 대출상환의 만기 연장, 중점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증대 등 서부지역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함.

- o 대출 증가 항목에는 인프라 건설 외에도 농업 개발, 환경보호, 중소도시 건설, 기업 기술 개발, 중소기업 지원, 학비 보조, 농촌 전력망 건설 등이 포함되며, 중요 상업은행 지·분점의 서부지역 개설을 적극 지원함.

□ 세수우대, 토지 및 광산자원 개발 지원, 각종 수수료 인하 등 투자 환경을 개선함.

- 서부지역의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, 사영기업의 발전 촉진, 중소기업 지원 확대, 외국기업 투자 절차 및 합병절차 간소화, 정부 기능의 축소 및 조정 등에 주력

- 또한 서부지역내 정부가 장려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내외국인 기업에는 일정기간 동안 15%의 기업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, 소수민족지역의 기업은 지방정부의 비준을 거쳐 일정기간 소득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정책을 실시함.

- o 인프라 건설 투자 기업에는 기업소득세를 2년동안 면제해주고 이후 3년간 50%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실행하는 한편, 환경보호 및 산림보호를 위해 농업 특산품에 대한 농업특산세 면세를 10년 동안 실시

- o 서부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로 건설 부지에는 토지사용세를 면제하고, 기타 도로건설에 따른 토지사용세의 면제 여부는 성 및 자치구 정부가 결정기로 함.

- o 정부가 장려하는 산업 및 프로젝트에는 투자총액 내에서 선진기술 설비를 도입할 경우(정부가 면세 제한을 규정한 제품 제외),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함.

- 서부지역의 황무지 개간 및 녹화사업에 참여하는 경제단체나 개인에게 50년간 토지 사용권을 부여하고, 기간 만료 후 연기를 신청할 경우 불하하거나 사용기한 연장을 허용할 방침임.
- o 특히 서부지역의 광산자원 조사, 개발, 합리적 이용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채광 및 채굴권을 민간에 불하하는 정책 제정을 검토하고 있음.
- 가격 개혁을 심화시킨다는 방침인바, 西氣東輸(서부의 가스를 동부로 수송), 西電東送(서부의 전력을 동부로 송전)에 따른 천연가스, 전력, 석유, 석탄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, 수자원 관리를 강화할 방침임.

□ 외국인 투자 영역 확대, 외자도입 방식 개선, 대외무역 발전 지원, 지역간 협력 강화 등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실시할 것임.

- 외국인 투자 장려 부문을 서부지역의 교통, 수리, 환경보호 등 인프라 건설 및 자원 개발, 기술 연구개발 등으로 확대하고 은행, 도소매업, 무역 등 서비스 분야도 외국기업에 개방할 방침임.
- o 특히 서부지역내 외자은행의 인민폐 업무를 허용하고 통신, 보험, 법률 및 회계 분야도 외국기업에 개방할 것임.
- 외국기업에게 인민폐 대출을 허용하고, 주식시장 상장을 지원함.
- o 또한 정부의 장려 및 허가 산업분야의 기업 등이 경영권 및 주식 양도, M&A 등을 통해 외자를 유치할 경우, 이를 적극 지지하고 중외합자기금, 벤처투자기금 등을 통한 외자도입도 적극 모색
- o 중국내 중외합자기업의 서부지역 투자를 장려하고, 재투자의 경우 외자 비율이 25%를 넘을 경우 외국투자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함.
- o 외국기업이 서부지역의 비교우위 산업 및 인프라 건설에 투자할 경우, 외국기업의 주식 보유 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중국 국내은행이 제공하는 고정자산 투자 인민폐 대출 비중 및 해외 우대대출 비중 제한도 완화한다는 방침임.
- 서부지역내 수출입 무역권 부여 대상 기업 확대, 비교우위 상품의 수출 장려, 인접국과의 합작 투자 및 인력 교류 제한 완화 등 대외협력 강화, 중요 기술 설비 수입 우대, 서부지역 외국인 여행자 사증 간소화 등 추진

○ 변경 무역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 통관 절차 완화, 인접국과의 상호 시장개방 추진, 기술 협력 촉진 등 정책적 지원 마련

- 동부 및 중부지역의 기업이 합병, 기술이전, 지분참여 등 서부지역내 투자 및 협력 진출을 추진할 경우, 이를 적극 지원

□ 그밖에도 중국정부는 인재 확보, 과학기술 개발, 교육 투자 강화, 문화·위생시설 건설 등을 추진키로 하였음.

3. 평가 및 시사점

□ 금번 「통지」는 향후 10년간(2001~2010년) 실시될 서부대개발 정책과 관련, 그동안 산발적으로 발표되었던 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.

- 서부대개발은 낙후된 서부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西藏, 新疆自治區 등 소수민족지역의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는 다목적 국가전략임.

○ 지역간 경제격차는 전국토의 13%에 불과한 동부지역이 GDP의 65%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.

- 중국정부는 금년 국채발행 수익의 대부분을 서부지역의 인프라 건설에 투입할 방침인바,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, 서부지역 시장 개방 확대 등 서부지역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.

□ 중국 연해지역의 생산원가 상승, 서부지역의 다양한 투자우대정책,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 전망 등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서부지역 진출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.

- 그러나 특정 프로젝트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부족, 관련 법규 미비, 대형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개별 기업 차원에서 단독으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.(***)

1. 2000년 GDP 증가율 8% 기록

- 2000년 중국의 GDP규모가 8.0% 증가한 8만 9,000억 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朱之鑫 국가통계국장이 밝힘.
- ‘9·5’기간중 중국의 연평균 GDP 성장율은 8.3%로 당초의 8% 목표치를 상회함.
- 현행 환율에 따라 계산할 경우, 2000년 중국의 GDP총액은 처음으로 1조 달러를 기록한 것임. (國際商報, 2001. 1. 3)

2. 2000년 세수총액 1조 2,660억 원 달성

- 2000년 중국의 세수총액은 1조 2,660억 원을 기록. 金人慶 국가세무총국장은 신년 기자회견담회에서 2000년 세수 증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은 6가지로 지적
- ① 세수증가 사상 최고 기록
 - ‘9·5’기간의 세수총액은 4조 7,000억 원으로 ‘8·5’의 2.2배, 이는 전 8차 5개년 계획의 세수수입 총합계보다 3,000억 원이 많음.
- ② 세수의 2가지 비중이 안정 상승
 - 2000년 GDP 중 세수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.2%로 ‘8·5’계획 마지막해의 10.2%보다 4% 포인트 높음.
 - 중앙급 세수수입이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9%로 5년전의 56.7%에 비해 2%포인트정도 상승함.
- ③ 월별 세수수입이 대체적으로 균형 유지
 - 2월을 제외한 월별 세수수입이 평균 900-1,300억 원 수준임.
- ④ 세관의 대리징수 수입관세와 증권거래 인지세의 빠른 증가
 - 세관의 대리징수 수입관세 완성액은 전년대비 43.7% 증가한 1,493억 원, 증권거래 인지세 완성액은 478억 원으로 전년대비 95.2% 증가함.
- ⑤ 국내 2가지 세수와 기업소득세 급증
 - 국내 증치세 징수액은 4,668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.7% 증가, 국내 소비세 징수액은 863억 원으로 2.2% 증가함.
 - 기업의 소득세 수입은 1,441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2.8% 증가, 개인의 이자

소득세 징수액은 149억 임.

⑥ 수출세 환급액은 8112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9.2% 증가

- 金 국장은 지난해 세수증가액의 2/3가 경제성장 효율의 향상에 힘입었고, 총 증가액의 22%가 정책과 가격요인으로 인한 일회성 소득에 힘입었으며, 이밖에 각급 세수부문의 감독관리 강화에 힘입어 300억 원을 징수했다고 지적
(經濟日報, 2000. 1. 5)

3. ‘중국 자본시장 포럼’ 개최

- 최근 ‘중국자본시장: 혁신과 지속발전’을 주제로 한 제5차(2001년) 중국자본시장 포럼이 中国人民大学에서 열렸음.
- 吳曉求 중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부원장 겸 금융증권연구소장은 중국 자본시장의 발전단계를 기반마련 단계, 시장화 단계, 국제화 단계 등 3 단계로 구분하고 현재 중국은 시장화 단계에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.
 - 자본시장 발전의 관건인 시장화 단계의 혁신은 주로 아이디어혁신, 시스템혁신 및 기능혁신을 가리킴.
 - 理念혁신의 핵심은 경제활동중 자본시장의 뚜렷한 역할과 자본시장 발전을 통한 현대금융체제 구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인바, 이는 제도혁신과 기능혁신을 통해 실현됨.
- 이밖에 吳소장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① 자본시장의 균형있는 운용, ② 시장질서와 규범의 준수 및 개선 ③ 시장리스크 방지에 대비한 지속적인 관찰과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
- 한편, 董輔弼 교수는 2000년 경제성장률의 8% 달성은 중국의 거시경제가 점차적으로 바닥을 벗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며, 주가지수는 향후 거시경제 호전과 더불어 계속 안정증가할 것인바, GDP성장과 주가지수 성장추세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
- 전문가들은 중국 투자은행업의 현황 분석을 통해 중국의 증권회사는 숫자는 많

지만 규모가 작고 관리수준이 낮으며 시장에 기초한 운영방향이 뚜렷하지 않은 점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

- 현재 중국 투자은행업의 이윤구조를 보면, 중개업무와 자체경영업무의 이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, 향후 자본시장에 대한 수준 높은 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이윤창출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임.

- 미래 투자방향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전통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고도화 개조 속도와 밀접하게 결합시킴과 동시에 신흥산업과 하이테크산업의 육성 및 부화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.
- 향후 중국의 자본시장은 장기간 대량의 합병·인수를 통해 기존 상장회사의 산업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상장회사 산업정책의 유도과 리스크투자업의 본격적인 발전 및 차스닥시장 설립하는 등 수단을 통해 신규 상장회사에 대한 산업고도화 목표를 실현해야 할 것임.
- 금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중국의 거시경제가 점차적으로 바닥에서 벗어나고, 자본시장의 본격적인 발전 및 현대금융체제의 구축을 위한 거시·미시적 경제기반이 이미 마련되었는바, 향후 장기간 중국 자본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생명력을 갖춘 시장이 될 것이라는 데 합의를 보았음. (工商時報, 2001. 1. 8)

4. 經貿委, 금년중 601개 기업의 債轉股(채권의 주식전환) 계획 제출

- 經貿委, 財政部, 人民銀行에 의하면 현재 국무원에 의해 채권의 주식전환이 승인된 기업수는 304개, 전환금액은 1,826억 원이며, 그 중 9개 기업이 개혁을 완수함. 경무위는 금년내로 601개 기업에 대해 채무의 주식전환을 실시할 계획임.
- o 국가통계국이 자산관리공사와 債轉股 계약을 체결한 5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통계에 의하면 채권의 주식전환 실시이후 기업의 자산부채율 하락, 효율증가, 과학연구개발력과 시장경쟁력 증강 및 자산의 질이 개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고 있는바, 약 87% 이상의 기업이 금년중 적자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임. (經濟日報, 2001. 1. 9)